



연변, ‘체육 + 빙설’ 깊이있게 융합 발전시켜

스키 코스에서 급가장하는 스키선수들의 몸짓이 씩씩하고 우아하다. 부르하통하 빙판에서 눈보라를 휘날리며 질주하는 차량의 엔진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진다... 풍부한 빙설자원과 다원화된 빙설업태는 국내외 빙설애호가들을 연변에 불러들여 체육과 빙설이 어우러진 격정적인 데이트를 실컷 즐기게 했다.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는 격정과 활력이 넘치는 빙설운동 종목으로서 운동선수들의 기능과 용기에 대한 테스트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자아에 도전하고 극한을 초월하는 정신을 과시하고 있다.

2024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4-2025 길림국제알파인스키/스노보드 챌린지(연변역)가 연길시 모드모아스키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연변역 경기는 이 대회와 세번째 경기로서 전국 각지에서 온 200여명의 스키애호가들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지령에 따라 스키 코스에서 나는 듯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능숙한 스키 솜씨를 뽐냈다.

스키애호가 박씨는 해마다 연변에서 개최하는 각종 스키경기에 참가한다. “나는 가까운 스키장에서 겨울철마다 스키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경기에 참가하여 스키의 스릴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흥취가 같은 친구들도 사귄 수 있어 매우 의미깊다.”라고 말했다.

2024-2025 빙설시즌에 연변은 ‘한차례 경기로 한 도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체육 + 빙설’의 깊이있는 융합을 추진하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빙설체육경기를 펼쳤다. 길림국제알파인스키/스노보드 챌린지, 대중스피드스케이팅초청경기, 청소년 빙설체육계열 행사 등 3개 성급 경기를 주최했으며 빙설모터씨클링레이, 대중스피드스케이팅초청경기, 동계수영초청경기 등 길림성 ‘한개 현, 한개 브랜드’ 경기를 3차 진행하고 빙설축구, 스피드스케이팅, 알파인스키 등 브랜드 경기 5개를 개최하여 루계로 3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체육애호와 관광객들이 연변에 와서 경기를 관람하게 했다.

자동차 모터의 굉음이 부르하통하에 울려 퍼지면서 빙설과 속도의 향연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최근 제8회 동북아빙설자동차모터씨클링운동대회 및 빙설자동차챌린지가 연길시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국내외 160여명의 레이싱애호와 전문레이서들이 빙설 코스에서 각축을 벌였다.

지령이 내려지자 경주차 한대가 질주하면서 귀청을 울리는 모터소리와 경주차의 고속 운행에 날라리는 눈보라가 경기장을 가득 메운다. 일련의 고난도 동작들은 현장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이 코스가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 같은데 특히 드라이버(赛车手)의 마음가짐과 리듬에 대한 통제를 테스트한다.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더 잘 개최되었다.” 경기에 참가한 드라이버 양은동이 말했다.

이 행사는 8년 연속 개최되는 동안 더욱 성숙되고 날로 완벽해지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자동차랠레이, 아이스카트라이더 등 종목을 보존하는 것 외에 아이스캠핑, 김 카나(金卡纳)경기 등을 새로 추가해 혁신적인 이벤트 형식으로 전례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연변은 전민이 ‘체육 + 빙설’의 ‘열풍’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빙설체육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얼음낚시, 빙상카트라이더, 설지도보(雪地徒步) 등 전통 빙설경기를 특색 개설했는데 연인수로 30여만명의 군중이 참여했다. 대회는 전 주 스키장과 실의 빙상장의 매일 평균 5,000여명, 루계 30여만명의 손님 접대를 이끌었

다. 이와 동시에 무료, 저비용 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전 주 공공체육관은 연인수로 100여만명의 건강단련 군중을 위해 봉사했다.

이 밖에 우수한 운동선수들을 적극 조직하여 국내외 경기에 참가시켰는데 참가 인수와 수상자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 5명이 제9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해 동메달 1개를 땀다. 30명이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제1회 중일한 청소년스피드스케이팅대회 등 국제급과 국가급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8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땀다. 100명이 국내외 성내 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20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0개를 따내 연변의 빙설 지명도를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고 연변에 와서 학습하고 교류하도록 많은 빙설운동애호가들을 끌어들이었다.

2024-2025 빙설시즌, 연내 4개 스키장, 65개 신축 실의 스के트장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루계로 40여개 빙설경기활동을 개최, 연인수로 120여만명의 국내외 운동애호가를 유치하고 5억여원의 소비를 이끌어 ‘뱅자원’의 ‘열경제’로의 나비변화를 실현하여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되도록 했다. /길림일보

확정! 이 8일 동안 소형차 무료 통행

련휴에 자가용을 리용해 출행하려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2025년 청명절(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로동절(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련휴에 유료도로 소형차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

국무원에서 발부한〈중대 명절 소형차 통행료 면제를 실시할 데 관한 교통운수부 등 부문의 통지〉(국무원발[2021] 37호)에 따르면 유료도로 무료 통행 시간 범위는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등 4개의 국가 법정휴일이다.

청명절 련휴는 4월 4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로 모든 유료도로(공항 고속도로, 유료 교량 및 터널 포함)에서 소형차 통행료가 면제된다. 4월 7일 0시부터 정상적으로 요금 부과된다.

로동절 련휴는 5월 1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로 모든 유료도로(공항 고속도로, 유료 교량 및 터널 포함)에서 소형차 통행료가 면제된다. 5월 6일 0시부터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인민넷-조문판

10월 1일전 개통

G331 장백산 순환도로 구간 작업 전면 재개

최근 G331 장백산 순환도로 01 구간 제2 공업구역 현장은 굴삭기, 제설차, 불도젤 등 대형 장비들이 작업을 진행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개통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 길림성고등급도로건설국, G331 프로젝트지휘부 및 시공단위는 혹한 추위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작업 재개 및 복구를 조직하며 프로젝트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G331 장백산 순환도로 01 구간 제2 공업구역은 장백산보호개발구 경내에 위치하며 총길이가 약 34키로미터로, 장백산 관광도로 K931+240에서 시작되어 이도백하진 미인송로와 연결된다. 이 도로는 장백산 기차역, 공항, 고속도로 및 현지 북쪽과 남쪽 관광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간선이다.”라고 중국제1항무공정국유한회사 01 구간 제2 공업구역 당지부 서기 조흠이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로 개조 및 확장 프로젝트로 현재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며 도로 등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승격시킨다. 시공 내용에는 34키로미터 도로 개조 및 확장, 교량 5개, 배수로 60개, 주차구역 1개, 전망대 2개, 보수구역 1개, 감독통제통신본센터 1개 및 배수 정류장 2개가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7월에 공식 착공되어 올해 10월 1일전에 개통 예정이다. 개통시, 장백산지역의 관광교통 조건이 크게 개선되고 연선 관광산업 및 자원 개발이 촉진되며 지역경제 발전

이 다그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길림성교통운수청과 길림성고등급도로건설국, G331 프로젝트지휘부 및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프로젝트는 토지 수용 및 철거, 자재 공급 부족, 교통 및 기후 등 불리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전 구간의 기본적인 공사를 완료했다. 시공측은 자재 입고를 엄격히 통제하고 표준화된 시공 공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시공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여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했다.

2025년, 중국제1항무공정국유한회사 프로젝트팀은 ‘시작부터 전력 질주, 출발이 곧 전반 국면’이라는 작업 철학으로 설 련휴 동안 연속적으로 자재를 준비하고 정월대보름전에 복귀하여 작업 재개 및 복구를 진행했다. 현재 60여명 관리자와 100여명 종업원이 모두 출근했으며 작업장의 눈철거 작업이 완료되고 도로면 공사 자재 16만립방미터가 준비되었으며 장소 건설, 로반 재압축, 교량 하부 구조 및 통로 매우기 등 시공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길림성고등급도로건설국당위의 ‘당건설 역량 강화 331’ 작업 배치에 따라 시공 조직, 자원 배치, 공정 최적화 및 안전 품질 관리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10월 1일전 개통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것입니다!”라고 조흠은 말했다.

/길림일보

길림성, 고령 로인 생활수당금 기준 발표

18일, 길림성민정청과 길림성재정청은 련합으로〈고령 수당금 지급기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통지〉는 길림성 호적의 80주세(포함) 이상 로인은 고령 수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80주세—89주세 로인은 50

원/인/월 이상이며 그중 최저생활보장 로인은 100원/인/월 이상이고 90주세—99주세 로인은 200원/인/월 이상이며 100주세 이상의 로인은 600원/인/월 이상이다. 고령 수당금은 신청한 달에 바로 발급한다. /분지종합

4월부터 장춘=도교 직항로 증가, 매일 1편

매주 4편이던 장춘=도교 항공편이 다음달부터 매일 1편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장춘공항그룹에 따르면 남방항공은 4월부터 장춘=도교 로선의 운항 능력을 강화하여 장춘=도교 직항편을 매일 1편으로 늘임으로써 많은 승객들의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기존에 매주 화, 목, 토, 일요일마다 운행되던 장춘=도교 CZ623 항공편은 8시(현지시간, 이하 동일)에

장춘에서 리륙하여 11시 55분에 도교에 착륙하며 도교=장춘 CZ624 항공편은 13시 25분에 도교에서 리륙하여 15시 30분에 장춘에 착륙한다.

새로 증가되어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운행되는 장춘=도교 CZ5071 항공편 역시 8시에 장춘에서 리륙하여 11시 55분에 도교에 착륙하며 도교=장춘 CZ5072 항공편 역시 13시 25분에 도교에서 리륙하여 15시 30분에 장춘에 착륙한다.

/유경봉기자



최근 길림시 창읍구 화파창진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창읍구농업농촌국에서 협찬한 ‘농기구 구매 농가 혜택’ 과학기술 에너지 부여, 3농 봉사 대형 행사 가 창읍구 화파창진에서 있었다. 행사장에 농자재, 농기 제품들이 즐비하게 갖추어진 가운데 농민들의 구매를 기다리고 있다. /길림일보

제1 자동차—폭스바겐, 11개 신에너지 차종 신규 배치

제1 자동차—폭스바겐자동차유한회사에 따르면 폭스바겐자동차그룹과 중국제1자동차그룹은 이미 전략협력 협의를 체결, 2026년부터 제1 자동차—폭스바겐이 폭스바겐자동차 브랜드와 제타 브랜드의 11개 새 차종을 새로 증가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전환을 다그치고 중국 협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시대 선두를 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1 자동차—폭스바겐의 신제품종에는 순수전기차 6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插电式混动) 2종, 증식(增程式) 2종이 포함된다. 제1 자동차—폭스바겐은 이 기회를 빌어 엔트리급 전기차 시장에 힘을 쏟게 되며 제타 브랜드는 2026년에 첫 순수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게 된다.

“전세계 자동차산업은 중대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있는바 중국과 독일 양측 주주들은 계속 글로벌 시야를 견지하고 30여년의 협력 축적에 의탁하며 전략적 협동, 공동 창조 진보로 전 세계 지혜와 본토 기술을 깊이있게 융합하고 제1 자동차—폭스바겐의 미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

하여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본토 시장에 더욱 밀착되고 더욱 우수한 스마트 출형 체형 최신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다원화 출형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중국제1자동차 부총경리 겸 제1자동차—폭스바겐 당위 서기이며 총경리인 진빈은 이같이 말했다.

“폭스바겐그룹과 중국제1자동차의 장기적인 협력은 중국에서의 우리의 왕성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초석을 다졌다. 폭스바겐그룹은 ‘중국에서, 중국을 위하여’ 전략을 계승하여 제1자동차—폭스바겐의 제품 라인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의 중국구 업무

담당 관리리사이며 폭스바겐그룹(중국) 리사장이며 수석 집행관인 베리드는 제1자동차—폭스바겐은 모든 동력 유형을 포괄하는 동시에 중점 배치,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증식 차종을 포함한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중국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폭스바겐그룹은 중국 시장에 약 40개의 신모형을 출시할 예정인데 그중 과반수가 전동화 제품이다.

/길림일보